

# CULTURE

## 01 올드보이

〈올드보이〉가 2006년 연극으로 돌아왔다. 탈출왕이라고 자부하던 무태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생명을 위협하는 납치를 당하기 수차례. 무태천은 죽일 만큼 자신을 위협하는 그 실체를 알기 위해 스스로 '감금'을 선택한다. 주인공 '무태천'으로 분한 <와이키키브라더스의 추상록, 김정균과 함께 서슬 퍼런 복수의 세계를 보여 줄 것이다. 이미 영화를 관람했다면 답을 알고 있겠지만 무대에서 보여 지는 치참한 복수극은 살 떨리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일정: 2006/3/10 - 2006/4/30  
 장소: 대학로우리극장  
 시간: 평일 - 8시/토 - 5시, 8시/일 3시, 6시  
 문의: 02-745-0308

## 02 3월의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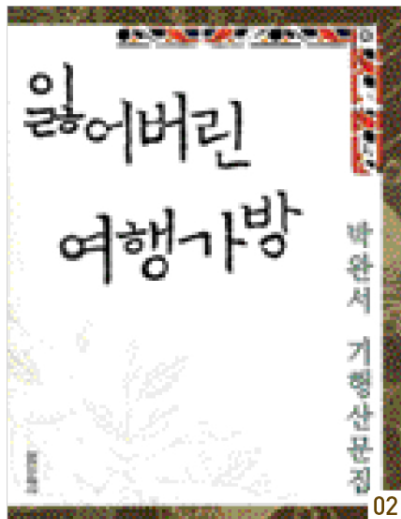
남자들이 모여 아줌마처럼 수다를 떠한다면? 2006년 신선한 감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아트>가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고 활기찬 공연으로 2006년을 장식할 예정이다. 강한 남자를 선호하고 남자들 간의 의리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한국식 고정관념을 깨뜨린 작품. 단단할 것만 같은 남자들의 의리 밑에 깔려있는 쫄쫄하고, 속 좁은 구석들을 리얼하게 까발린 <3월의아트>. 그들의 진면목을 살펴보자.

일정: 2006/2/23 - 2006/4/30  
 장소: 학전블루소극장  
 시간: 평일 - 8시/토 - 4시 7시/일, 공휴일 - 3시 6시/월 공연  
 문의: 02-764-8760





01



02



03

**01**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 푸른숲  
 '바람의 딸' 한비아가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이후 4년 만에 펴내는 책.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으로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써내려간 5년간의 기록이자, 자유롭고 거침없는 한비아의 삶에 관한 보고서이다. 구호 활동을 시작한 200년 10월부터 2005년 현재까지의 주요 파견지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다. 훈련병이 되어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초보 딱지를 뗀 뒤에는 자신만의 영역을 맡아 훌륭히 임무를 완수하고, 마침내 교육자로 거듭나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전작들과 사뭇 다르다.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고, 뿔뿔뿔뿔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삶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예전 그대로지만, 그가 들여다보는 것은 세계 곳곳의 긴급구호 현장들이다. 고통 받고 외면당하고 끝없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곳. 그러나 한비아 특유의 따뜻함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세상은 더 이상 먹고 먹히는 정글의 법칙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실을 일러준다.

**02** 잃어버린 여행기방 박완서 | 실천문학사  
 박완서 신작기행 산문집. 그동안 써온 12편의 기행 산문을 모아 엮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작가는, 감칠맛 나는 문장을 생산하는 우리 시대 몇 안 되는 산문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작가 박완서의 여행기록이면서, 동시에 인생이란 긴 여정에 대한 거장의 철학을 담고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그만의 독특하고 즐거운 글맛과, 소박하지만 긴 여운을 전해주는 글이 미소를 머금게 한다. 오체투지로 설산과 자갈밭을 고행하는 사람들의 그 만행의 법열을 이방인이 해독한다는 것은 모독일 수 있지만, 전생의 인연 속에서 만났음직한 미치게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정복되지 않은 대지와 순연한 사람들의 미소, 부처와 라마의 미라, 그리고 저 모래바람 속의 침묵까지 사유하여 회화적으로 결정지어 보여주는 티베트-네팔기행기는, 탁월한 리얼리스트의 지안이 그려낸 성(聖)과 속(俗)에 대한 풍경이다. 작가의 깊은 연륜이 더해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박한 감동을 건네는 기행산문집이다.

**03**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공지영 | 소담출판사  
 2005년 5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과 파리에 있는 두 작가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한겨레신문'에 '먼 하늘 가까운 바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제목을 바꿔 단행본으로 펴냈다. 흥이와 준고, 한국과 일본 두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생정과 열정 사이>처럼 초지 히토나리는 남자의 시선으로, 공지영은 여자의 시선으로 내면과 상황을 이야기한다. 두 권의 소설을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사랑이 완성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소설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두 나라의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적, 역사적 문제보다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 남자이고 여자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 하는 사건 등을 풀어간다.